



STEFANO PILATI

2004 ~:

입생 로랑 크리에이티브 디렉터

2000.03 ~:

입생 로랑 여성복 디자인 디렉터

1995 ~:

미우미우 패션디자이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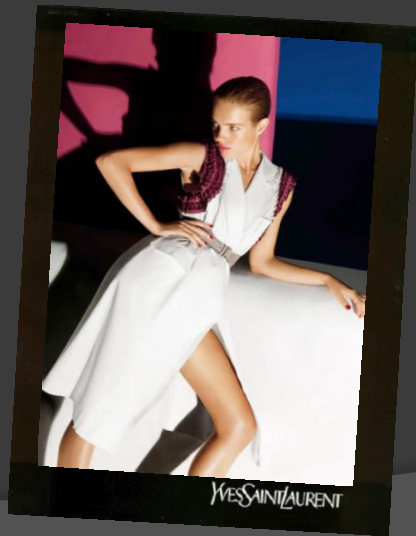
1993~1995 ~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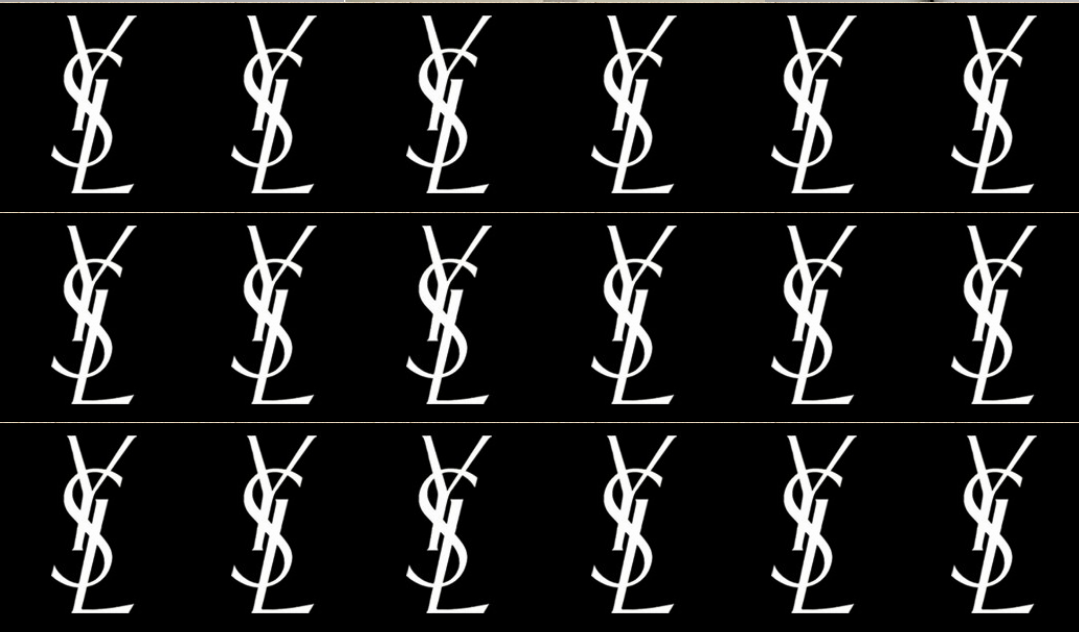
아르마니 남성복 어시스턴트
디자이너

YVES SAINT LAURENT

Biography

1965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난 패션 디자이너 스테파노 피라티는 패션이 아닌 환경 디자인을 전공했다. 그러던 중 니나 셀루티에서 인턴쉽을 거쳐,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아르마니 맨즈웨어의 디자이너 어시스턴트로 일하게 된다. 1995년 프라다 패션 하우스에 입사하는 그는 미우미우 맨즈웨어와 우먼즈웨어를 디자인하며 경력을 쌓아나간다. 2000년 이브 생 로랑에 입사해 당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톰 포드 디자인팀의 여성복 디자이너 디렉터로서 일한다. 2004년 톰 포드의 자리로 승진한 스테파노 피라티는 이브 생 로랑의 수장으로 2008년 현재까지 활약하고 있다. 이 디자이너는 관능에 지나치게 집중했던 톰 포드와는 달리 이 패션하우스의 꾸뛰르 역사에서 패션 유산을 발견해 컬렉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. 2007년 한때 그가 이브 생 로랑을 떠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지만, 구찌 그룹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며 소문을 일축했다. 패션이 단지 글래머러스한 것이 아니라, 동시에 사회적인 어떤 것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스테파노 피라티는 이브 생 로랑의 역사를 새로운 테일러링과 패브릭으로 재현하는 디자이너로 평가 받고 있다.





2008 f/w 컬렉션

스레파노 필라티의 이브 생 로랑은 언제나
 우아했다.
 하지만 이번은 모던하기까지 하다.
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여성을 만들어주는
 이브 생 로랑의 의상들은 그런 의상들에
 속하는 것 같다.
 좀더 노멀한 웨어로 위장을 하고 남들이
 하지 않는 것을 시도하려는데 이번 입생로랑
 컬렉션에서도 그만의 독특한 구조를
 레디투웨어속에서도 간간히 계속 섞어냈다.